

4000여학우들의 대중조직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여학생회
통일시대의 여성민중인 나의 삶까지 모색하는
홍익 여성이 되자!!

1. 15대 여학생회까지와 홍익 여학우들을 돌아보며

올해로 재건 두 해제를 맞이하는 여학생회는 그간의 여학생회 운동을 잘 짚어보고 부족했던 부분은 더욱 채워나가야 하기에 그간의 여학생회를 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여학생회란 무엇이며 이를 잘 알고 그에 비춰 그간의 여학생회에 대해 평가해보는 게 맞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홍익학우들이 여학생회가 어떤 곳이고 뭐 하는 곳인지 물어보곤 한다.

홍익대학교 자주적 여학생회란 홍익대학교 여학생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곳이다. 홍익대학교의 여대생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는 우리나라의 여성으로서, 홍익대학교 여학생으로서의 이해와 요구라 할 수 있다. 하기에 여학생회는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교 제반에 나서는 문제나 여성으로서 겪는 여성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여학생들의 지향과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대표체 기구가 바로 여학생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학생회는 여성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함께 공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여대생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위상을 갖고 시작한 여학생회이지만, 16대가 되기까지도 그 위상의 견실한 공유의 부족으로 홍익 학원 내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기에 16대의 위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홍익학원 내에서의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대부터 15대까지의 항상 대두되었던 문제들이 고질적인 병폐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를 잘 짚어보고 이번 16대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할 것이다.

그 문제들을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 여학우들의 주체의식 부족으로 인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정면으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여대생은 어떤 여성민중보다 많은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상처럼 느껴진다. 하기에 여학우들은 여대생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불평등을 덮여진 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이는 여학우들의 주체의식 부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후의 여성민중으로서 살아가기에는 피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여학생회는 이러한 주체의식 부족을 상승시켜 진지하게 자신의 여성민중으로서의 이후의 삶까지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소속감 결여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여성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 해결하는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하고 독자적인 여성의 이해와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여학우들이 자신을 위한 학생회이고 자신이 여학생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의 결여를 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표출은 '무관심'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홍익대 여학우들의 여성으로서의 안고 있는 내재적인 고민들을 '관심'으로 풀어내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홍대 여학우들의 공통된 내재적 고민들을 받아안을 수 있게 직접 기층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며 그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셋째, 여학생회 내부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업 표출 방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여학생회 집행부 자체가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이유로 사업 표출에 있어서 많은 고민, 지속적인 고민을 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이는 여학생회의 공백과 더불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작년이 여학생회 건설로 학우들의 폭넓은 인식에 주력했다면 이번 16대 여학생회는 이를 기반으로 대중적인 여학생회가 되는 것과 함께 집행부를 꾸준히 꾸리는 과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16대 여학생회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강화와 더불어 학우들의 무관심을 타파할 수 있는 인식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고 지금은 여학생회가 회장단으로만 꾸려가고 있지만, 기층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인식확대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2002년 16대 여학생회 전망과 총노선

우선 2002년도 시기 규정을 하며 전망하는 것은 올해의 여학생회르 꾸리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이 두 돌이 되는 해이며 여학생회도 또한 재건 두 해가 되는 해이다. 6.15가 두 돌이 된다는 것은 민족 구성원인 우리 학우들에 있어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들이 통일을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머지않은 통일 조국을 청년들인 우리 대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학생회 사업들이 이러한 6.15시대에 맞게,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의식 지향을 만들어 나간다는 정형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학생회 또한 그러하다. 통일시대에 맞는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은 물론 사업의 정형을 6.15시대에 맞게, 학우들의 요구에 맞게 꾸려나갈 노력을 할 것이다. 학우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학우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학생회는 담보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학생회는 재건 두 돌을 맞이해 학우들에게 확대되어 있는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여학생회 활동이 본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의 (앞에서도 돌아보았듯이) 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여학생회라는 인식에 많이 부족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잔존하고 있다. 하지만 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내재적인 고민들을 들추어 내고 결국 그 고민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여학우들이 인식,공유한다면 우리들의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 강화 뿐만 아니라, 여학생회가 여학우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조직, 우리들의 여학생회 라는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들의 여학생회로 거듭날 때, 진정한 4000여학우들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기층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학생회가 잘 될 때는 과 여학생회나 여학생 소모임이 많은 과들에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여건이나 우리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는 이전과 별로 달라진게 별로 없는 현실임에도 이런 여학우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여학생회부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16대 여학생회는 이런 여학우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함께 모색하려면 기층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망한다. 여학생회는 기층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물론 총여학생회가 기층 학우들의 요구 수렴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여학우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층 건설 강화에 힘쓸 것이다.

둘째, 1,2,3,4,학년 여학우들의 다양한 고민을 받아안고 수렴하는 사업의 정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우들을 직접 만나보면 함께 하고 싶어도 자신이 직접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학우들이 많이 있다.

함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문제이기에 나설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하고 함께 해나갈 것이다. 새내기 '성'인식 올곧게 세우기, 졸업 앞둔 4학년 여학우들의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회등 우리 여학우들이 나, 여성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3.마치며

16대 여학생회는 지금까지의 여학생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한계점과 실현 방도를 안다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학우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학생회 일꾼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이 총노선과 사업계획들을 해나가는 실질적 주체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여학생회는 비록 회장단으로만 꾸려져 있지만 “헌신성이 담보되는 결심이 실질적 결심“이라는 생각과 결심으로, 사람이 붙고 4000여학우들의 대중적 조직인 “우리 여학생회“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